

보도일시	2025. 12. 19 배포즉시	위원장	이수진
담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국	문의	02-2630-7082,7085~7, womenminjoo@gmail.com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 전국여성위원회 6·3지방선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유권자 분석, 현장경험 공유, 제도개선 방안 모색
- 6.3지선 여성 광역단체장 10% 이상, 기초단체장 20% 이상, 광역의원 30% 의무공천 목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늘(12.19(금)) 오후 2시 내년 6·3 지방선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만이 아니라 정당의 의지와 제도적 개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혜련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성숙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면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하여 유권자 분석, 현장 경험 공유,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통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와 제도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민주당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며 “전국여성위원회는 내년 지선에서 여성 광역단체장 10% 이상, 기초단체장 20% 이상, 광역의원 30% 이상 의무공천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의 ‘여성대표성 확대 전략’과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여성 공천 확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정보현 인천연수구의원(기초의원)에게 현역 청년 여성 의원의 경험과 구조적 제언을 듣고 서현옥 경기도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출마 당사자로서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이하나 여성신문 편집국장은 “12.3 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위기를 개인의 삶과 분리하지 않고 민주주의 문제로 인식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2030 여성들의 정치적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이 경제적 불평등과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일상적 안전을 포함한 민생 의제에 집중하면서 2030 여성들의 요구를 지방정치와 제도 속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역시 “2022년 제20대 대선부터 같은 해 지방선거, 그리고 올해 제21대 대선까지 최근 주요 선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꾸준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면서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2030여성 투표율이 모두 50%를 넘지 못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로 증명된 캐스팅보터로서 20대 여성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방선거 전략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는 오늘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여성공천·여성당선인 확대와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 [붙임] 토론회 안내 이미지

2025.12.19.(금)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붙임]

더불어
민주당



2026년 6.3지방선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5년 12월 19일 (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토론회 신청 QR ▲

좌 장 백혜련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

발 제 6.3지방선거의 정책 배경 및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전략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6.3지방선거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정보현 인천 연수구의원
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하나 여성신문 편집국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 주최 | 더불어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